

여성계 22일 '張裳지지' 결의대회

박영숙 前의원등 20여명 토론끝 결정

문리

청문회 앞두고 정치권과 마찰 가능성

장상 총리 지명자에 대한 각종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가 장상 지명자에 대한 총리지명 지지 행사를 오는 22일 공개적으로 갖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 인사청문회(29~30일)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위헌 논란 및 총리 업무 중단 요청 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여성계의 대응 성격이 있어 향후 정치권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영숙 전 의원은 17일 "장 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밝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문제"라며 "사상 첫 여성총리 임명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지지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그러나 "무조건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최초 여성 총리 지명을 지지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자질 문제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

다.

박 전 의원을 비롯, 이계경 여성신문 사장,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 등 여성계 지도자 20여명은 지난 15일 박 전 의원의 고회를 축하하는 모임을 갖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지 대회가 자칫 장 총리 지명자의 아들 국적 문제 등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 일부 지적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여성총리 지명에 의미를 뒀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오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지결의대회를 통해 장 총리 지명자에 대한 공식 지지의사를 천명할 계획이다.

장상지명자는 16일 오후 상도동으로 김영삼 전대통령을 방문, 이화여대 동문인 손명순 여사와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kr